

#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

高慧琳\*

## <목 차>

1. 들어가며
2.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시기구분에 관한 대표적 논의
3.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
4. 나오며

## 1. 들어가며

중국대륙 학자들은 경계 내에 치중되었던 문학연구의 범위 확장을 점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그리고 연구지역에 대해서도 타이완뿐만 아니라 홍콩과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면서도 포괄적인 의미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전환은 한국의 중국문학계에서도 차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중국대륙에서 말하는 '세계중국문학'에 대한 논의는 문학을 이용한 중화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확장이라는 면에 치중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주제의 연구서들이나 학술대회 개최 등은 이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는데 필자는 한국에서 중국문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좀 더 비판적으로 중국대륙의 시각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을 '화인'으로 부르면서 동시에 이들을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서 접근하고자 한다. 화인 집단은 이민자 집단들 중에서도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화인 디아스포라 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이들의 정신세계와 문화에 대한 이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특히 북미 지역은 18세기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이민이 시작되었는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민의 역사가 길며 다문화적 상황에 일찍부터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다문화적 환경과 다인종적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다. 북미 지역의 화인에 의한 문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수많은 작가들이 이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미 화인 디아스포라 문학은 '접촉 지대'<sup>1)</sup> 속에 존재하면서 혼종화를 겪는 새로운 저항담론으로 자리할 충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중국대륙이 아닌 지역에서 형성되고 발전하고 있는 문학의 형식이나 담론들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중국대륙의 중화주의 강화 전략으로 파생된 세계중국문학 논의에도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 화인 디아스포라 문학에서도 특히 중국어로 창작된 작품들을 한정해서 연구하게 될 때 우리는 이를 화인화문문학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화인화문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역사와 시기구분에 대한 것을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특히 대량의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고 작품들도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던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 2.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시기구분에 관한 대표적 논의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는 정책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중국인에 대한 몇 차례의 이민법 개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야기된 중국대

1)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New York: Routledge, 1992, p.6.

륙과 미국의 정치적 파트너십 전략의 변화 및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와도 연관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 화인들의 자구적인 생존전략과 같은 요인도 있다. 대개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들이 북미 화인화문문학사의 분기를 나누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는 黃萬華<sup>2)</sup>의 주장과 같이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비교적 용이하고 간명하기에 시간적 구분이라는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다. 黃萬華의 시기 구분에 따르면, 북미 지역 내의 이민 2세·3세에 의한 문학 활동에 대해서 시기 구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미국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화인화문문학으로 한정하여 살펴 보게 된다면 黃萬華의 구분법은 두 가지 이유에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黃萬華의 시기 구분은 북미 지역의 이민의 역사와 중국대륙 및 타이완과 북미의 정치적 전략적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이 시기 구분법은 해당 시기별 문학창작 주체들의 성격에 따른 구분에 근거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북미 화인화문문학사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캐나다 지역의 역사적 특징과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을 함께 살펴본다면 이는 전체적인 북미 화인화문문학사를 개관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黃萬華의 책 외에도 李亞萍의 《故國回望》, 黃昆章과 吳金平의 《加拿大華僑華人史》 등의 책을 참고한다면 북미 화인화문문학사 자체에 관해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美國華文女作家評述》과 같은 책에서는 화인화문문학의 시기구분이 네 세대로 나누어지긴 하지만 黃萬華의 구분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 점도 있어 참고할 만하다. 즉, “시간상으로 볼 때, 미국 화인문학은 지금까지 4세대를 경험했다. 1세대는 20세기 초기의 화문문학이고 2세대는 1950-60년대 타이완에서 미국으로 온 작가들이며, 3세대는 1980년대 외국으로의 유학 붐이 일던 분위기 속에서 출현한 사람들과 중국대륙으로부터의 작가들을 포함한다. 4세대는 전지구화 정보화의 조류로부터 출현하는데 2세대의 화예작가들도 포함된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북미 화문문학

2) 黃萬華, 《美國華文文學論》,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2000), pp.3-13.

의 세대교체의 속도는 아주 빠르다.”<sup>3)</sup>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책의 서문2에서 葉枝梅가 밝히고 있듯이 그는 화인화문문학을 중국대륙문학의 확대라는 측면<sup>4)</sup>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기본적으로 중국대륙 측의 학자들이 바라보는 ‘해외화인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이 책은 於梨華 뿐만 아니라 책에서 다루고 있는 木令耆, 喬錦聲, 譚恩美, 陳若曦, 嚴歌苓, 湯亭亭, 任璧蓮, 蓬丹, 曾寧을 일관되게 중국대륙의 문학의 연장선상에 두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북미 지역의 화인화문문학사에 관한 상기 책들이 서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黃萬華의 주장을 따라 시기구분을 전제하더라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시기구분을 하는 것이 국내에서 최초로 논의되는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관한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임에는 이의가 없다. 그리고 시기구분 자체에 대한 논의는 현재로서는 더 나은 주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黃萬華의 시기구분법이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하리라 생각한다.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은 이 지역의 이민법 개정과 세계정세의 역사적 흐름과 관련을 맺고 있다.<sup>5)</sup> 그러므로 시기구분에 대해서는 黃萬華

3) 從時間上看, 美國華人文學迄今已經歷四代: 第一代是上个世紀初期的華文文學; 第二代是上个世紀五六十年代從臺港進入美國的一批作家; 第三代是上个世紀80年代出國潮推動下出現的, 包括一批大陸的作家; 第四代則適應了全球化、信息化的大潮而出現, 包括第二代華裔作家。可以看出, 北美華文文學的更新換代的的速度十分迅猛。海外華文文學研究專家黃萬華稱, “文學史展開其自身進程中, 往往二十年一個周期。”(葉枝梅 主編, 《海外華人女作家評述: 美國卷》,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6), pp.3-4 서문)

4) 無疑, 本書僅是在世界華人女性文學研究方面做些微不足道的努力。從某種意義上來說, 海外華人文學應是中國文學的海外延伸, 又是對中國文學的超越。我們希望以自己的努力增進人們對海外華人作家及其作品的關注。(葉枝梅主編, 《海外華人女作家評述: 美國卷》,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6), p.8 서문)

5) 미국에서 소수민족문학 혹은 에스닉 문학이라고 명명된 화인화문문학이 미국의 중국대륙이나 타이완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순진한 가정을 배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문학사회학적 관점이라고 치부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의 화인화문문학사 자체를 다룬다면, 미국의 이민법이라는 정치적 전략과 역사적 사실을 비교적 무게감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와 李亞萍, 黃昆章과 吳金平의 구분을 참고하면서 역사적 사실들을 함께 기억하여 북미 화인화문문학사를 읽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시키면 효과적일 것이라 믿는다. 문학의 형태와 문학성을 갖추었다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의 출현 이전인 제1기는 이후의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바탕이 되고 싹을 틔울 준비를 했던 시기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도록 한다.

### 3. 북미 지역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

#### 3.1. 제1기: 18세기 후반-1945년 무렵

이민의 역사는 1785년부터 1882년 중국대륙으로부터의 북미 지역으로의 노동이주로부터 시작된다. 1882년과 1888년 두 차례 미국에서 '排華法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노동이주민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지만 이때부터 북미 화인 디아스포라 문학은 탄생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제1기는 18세기 후반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를 일컫는다. 이 시기는 이민의 역사와 그 궤도에 있어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시기로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는 아편전쟁 전후로부터 시작하면 무리가 없다. 초기 문학적 형태는 서간문, 일기의 형식으로 창작되었는데, 문학성을 띤 것으로 여겨지는 작품들은 주로 중국대륙에서 '5·4' 이후 유학생들이 미국을 오가며 창작했던 작품들을 주축으로 하게 되며 이는 주로 1910년부터 1930년 무렵이다.

주로 중국대륙 출신의 북미 유학생들이었던 이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었던 이 시기 대표적인 작가로 우선 胡適가 있는데, 그는 《嘗試集》을 미국에서 완성했다. 이어 聞一多의 《留美通信》, 《洗衣歌》, 陳衡哲의 소설 《小雨点》 등도 미국 유학시절 창작되었다. 이중 聞一多가 쓴 《洗衣歌》는 미국 화인들의 지난한 삶과 동정어린 시선을 담고 있는데, 이 작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국대륙의 정치적 문화적 변화에 관한 내용이 주종을 이루었다.<sup>6)</sup> 하지만 본격적으로 북미의 화인화문문학사를 언급하자면 연구대상의 질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양적 측면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자면 제1기의 문학생산이 연구나 담론을 이끌어내기에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좀 더 활발하고 본격적인 문학 작품이 쏟아지는 제2기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20세기 초기의 드문드문하지만 분명 문학 작품이 존재했던 시기에 대해서 제1기로 규정하는 것은 함당할 것으로 본다.

물론 작가의 수와 작품량, 인지도와 작품의 독자에 의한 소비의 정도 등 전반적인 성과 측면을 이야기하자면 뒤에서 다룰 제3시기가 더욱 괄목할 만하다. 하지만 제1기에 있어서 林語堂을 위시한 작가들의 활동은 다음 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초석으로의 역할은 충분히 하였다. 북미 지역의 두 국가 미국과 캐나다는 제1기 이후 각기 타이완 출신과 홍콩 출신의 이민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타이완과 홍콩의 특수한 지리적 특성에서 오는 항구와의 접근성 및 서양 문물과의 교역 증대가 첫 번째 이유이고, 그로 야기된 타이완과 홍콩에 거주하는 이들의 시야가 확대됨과 동시에 그들이 세계를 대하는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 두 번째 이유다. 그리고 앞서의 두 이유만큼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개개인의 경제적인 요구로 인해 이주자의 신분으로 새로운 곳에 정착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캐나다의 백인 종족주의자들은 중국계 이민자들이 캐나다에서 오직 돈이 되는 것만을 갈취하러 온 것처럼 치부했으며 심지어 백인들의 일자리를 뺏기 위해서 자신들의 나라에 들어온 이방인 취급을 하던 인식이 팽배했는데 이는 캐나다 뿐 아니라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초기 이민자들이 백인들도 하기 꺼려하고 힘든 막노동에 종사하면서 철도를 건설하고 탄광에서 일하는 등 거주국에 끼친 좋은 영향들도 적지 않았지만 그

6) “胡適의 시歌《賞試集》就是在美國的土地上完成的；聞一多的《留美通信》、《洗衣歌》，陳衡哲的小說《小雨點》等也都是在美國留學時創作的。《洗衣歌》深切地表達了聞一多對美國華人苦難生活的同情，這一時期的留學生更多關注國內的政治文化的變化，創作比較少，因而常被研究者忽略。”（李亞萍，〈故國回望：20世紀中後期美國華文文學主題研究〉，（北京：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2006），p.7-8）

러한 긍정적인 부분은 간과되기 쉬웠다.<sup>7)</sup> 초기 북미 지역의 화인 이주자들은 기본적인 생계유지는 물론 낮은 땅에서의 적응과 융화가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로 인해 문학적 활동이라고 부를 만한 사인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시기의 특징이자 한계가 된다. 또한 '북미 지역에서 최초라고 여겨지는 화인에 의한 문학적 활동'이라는 긴 수식어를 붙여서라도 '최초'라는 의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는 편지글 형태의 글들을 문학적인 형태에 가까운 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문학적인 형태에도 가깝고, 문학적인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나 문학 작품의 핵심적인 요소인 독자가 빠져있다는 점에서도 이 시기의 화인화문문학사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3.2. 제2기: 1945년-1950년대 말

제2기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핵심이 되는 사건은 화인들에 대한 이민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던 1943년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sup>8)</sup>을 들 수 있다. 黃萬華는 미국 화인화문문학의 시기를 나누는데 있어서 1940년대 중후반에 첫 번째 고조기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도 시기를 같이 한다. 게다가 중국대륙과 미국의 대치상황으로 야

7) 黃昆章, 吳金平 《加拿大華僑華人史》,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01), pp.35-36 참조.

8) 제2차 세계대전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또 다른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군이 되었고, 적군이 된 일본은 아시아 전선에서 미국의 아시아인 차별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43년 미국은 60여 년간 지속해오던 중국인 배제법을 철폐했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인의 이주와 가족상봉이 가능해진 데 반해, 그동안 중국계에 비해 혜택을 받아오던 일본계 미국인들은 잠재적 적군으로 간주되어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다. 국제정세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예이다. 그러나 당시 유럽 전선에서 미국의 적이었던 독일이나 이탈리아 출신 미국인들은 수용소에 갇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아시아계에 대한 미국의 뿌리 깊은 불신과 차별을 그대로 보여준다. (박정선,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타자화와 그 문제점>, 《역사비평》, Vol.-No.58, (역사문제연구원: 2002), pp.284-285)

기된 반이민법과 반중정서로 말미암아 중국계 이민자들의 이민을 제한하는 법령이 발효되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화인화문문학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의 의미는 현재 시점에서 다루어지는 것보다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것은 미국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데, 黃萬華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동남아시아 각국의 화문문학에 있어서는 일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전후 새롭게 출발하는 동남아 각국은 민족해방을 쟁취하고서 독립적인 주권국가의 임무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것은 1950년대 중후반까지 대체적으로 모두 완성되었다.”<sup>9)</sup>고 진단하였던 것처럼 전쟁의 종결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역사적인 상흔으로 얼룩진 각국의 억압된 문화욕구에 불을 지폈던 하나의 동인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40년대 중후반은 미국의 화문문학의 첫 번째 고조기였다. 1945년 미국의 동서 양진영의 화교청년작가들은 미국 내에서 첫 번째 초지역적인 화교청년문학단체인 “華僑青年文藝組”를 만들고 《華僑日報》副刊을 통해 《綠洲》를 간행하였고, 화교문학작품과 논문들을 주로 발간하는데 치중했다. 1947년, 華僑文化社 등의 단체들도 뉴욕에서 《新苗》월간을 창간하였고, 《突圍》와 같은 책들을 출판했다. 1948년, 三藩市華僑青年輕騎文藝社도 《輕騎》를 펴냈다. 이와 같은 미국 화교문학단체들의 성원으로 시, 소설, 산문, 논문을 막론하고 미국에 있는 화인화교들의 힘든 상황을 깊이 있게 다루어 반영하였다. 당시 華僑文化社의 회원이었던 溫泉은 현재까지 《新苗》 등의 간행물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1940년대의 美華文學에 관한 글을 발표하여 소개하기도 했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학술계는 이미 美華文學을 논하면서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로 인해 美華文學의 발생과 발전의 역사에 관한 서술이 항상 온전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1950년대 이후, 美華文學은 또 한 차례 복잡하고 혼란한 생존적 환경에 놓이게 된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대치로 인해 미국사회에서 반공 매카시즘(MacCarthyism)과 고질병인 아시아계통 인종의 배척 분위기가 결합하여 화교화인들의 생존은 또다시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1950년대 후반의 미국 국가정책이 분명하게 각각의 인종들의 평등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9) “二次大戰的結束，對東南亞各國的華文文學都是一個重要的轉折點。戰后重新開始的東南亞各國爭取民族解放，建立獨立主權國家的任務，到20世紀50年代中后期都大致得到了完成。”（黃萬華，〈民族性和公民性間的夏雜糾結〉，饒芃子，〈流散與回望〉，（天津：南開大學出版社，2007），p.166）



소수인종들이 미국의 주류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적극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화교화인들은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落葉歸根)’에서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落地生根)’로의 전환을 기본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sup>10)</sup>

제2기는 1945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 미국에서는 ‘排華法案’이 철폐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대륙에서부터의 유학생이 급증했고 중국대륙의 항전문학의 영향으로 북미 지역에서도 항일문예운동이 꽃을 피웠다. 다양한 문예단체<sup>11)</sup>들의 활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화문문학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시기였다. 항일문예작품들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부분적으로 디아스포라적 인물을 제재로 다루거나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다루는 작품들도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는 괄목할 만한 작가군의 부재가 아쉽지만 그보다는 향후 제3기의 초석이 되는 문학 인프라의 구축이 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黃萬華와 李亞萍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1950년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가 북미 화인화문문학이 꽃피운 첫 번째 시기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 이전 시기에 대해서 문학형태를 갖춘 문학 활동들이 드문드문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된 주장을 펼치고 있

10) “40年代中後期是美華文學的第一個高潮。1945年，美國東西兩岸的一批華僑青年作者組成了美國本土上第一個跨地區的華僑青年文學組織“華僑青年文藝組”，在《華僑日報》副刊推出《綠洲》，集中刊發關與華僑文藝的作品和論文。1947年，華僑文化社等又在紐約創刊《新苗》月刊，並出版《突圍》等書。1948年，三藩市華僑青年輕騎文藝社也創辦社刊《輕騎》。這些美華文學團體此呼彼應，其創作無論是詩歌、小說，還是散文、論述，在反映在美華人華僑的苦難境遇上都有一定深度。當年華僑文化社的成員溫泉至今還保存有《新苗》等刊物，並曾撰文介紹40年代的美華文學。可惜目前學術界已有的美華文學論述中，都忽略了這一重要環節，而使得對美華文學發生發展的歷史描述變得殘損不全。50年代以後，美華文學又面臨著一個複雜紛亂的生存環境。一方面，由於中美對峙，美國社會反共的麥卡錫主義和故態復萌的宗族排華情緒結合，使華僑華人的生存再次面臨困境。另一方面，50年代後的美國國家政策已明確主張各族裔的平等，少數民族進入美國主流社會的機會和積極性大為增加，華僑華人基本上完成了由“落葉歸根”到“落地生根”的轉化。”(黃萬華主編，《美國華文文學論》，(濟南：山東大學出版社，2000)，p.5)

11) 黃萬華에 따르면 대략 20-30여개의 문예단체가 이 시기 미국에서 생겨났으며 이들은 주로 샌프란시스코, 뉴욕, 로스앤젤리스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黃萬華, 《美國華文文學論》, (濟南：山東大學出版社，2000)，pp.4-5 참고)

기도 하다. 하지만 초기 화인 디아스포라들은 생존의 문제에 급급했고 본격적으로 문학성을 가늠할 수 있는 문학작품이 등장하기까지는 주류문화 속에서 수용과 숙성에 소요되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가능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북미 문학계도 이주자들을 수용할 만큼 의식이 성숙하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도 사실이다. 이후 타이완 출신 유학생들이 대거 이주하고 학술, 문학, 저술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이들은 ‘목소리’를 가지게 된다.

### 3.3. 제3기: 1960년대 말-1980년대 말

제3기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바뀐 미국과 중국대륙의 관계 속에서 타이완 지역이 미국의 우방으로 부상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한다. 이 시기에는 타이완출신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대량의 작품을 쏟아내었는데, 소설들이 영어로 번역되고 다시금 중국대륙과 타이완으로 역수입되었던 시기를 문학의 한 차례 고조기로 상정할 수 있다. 이후 중국대륙과 미국의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동시에 타이완출신 유학생들의 문학적 생산력이 1980년 무렵 주춤하긴 했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이주민의 신분으로 미국으로 옮겨간 지식인과 작가들보다 이민2세대와 3세대들이 문학적 생산력 측면에서 확연히 괄목할만한, 그리고 월등한 성적을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65년은 아시아인의 미국이민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로 기록된다. 이 해에 미국은 이민법을 개정했는데, 이 획기적인 이민법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지역이나 국가들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모든 국가에 공평한 숫자의 이민자 쿼터를 분배했다. 즉 아시아 국가든 유럽 국가든 모든 나라는 한 해에 2만 명까지 신규 이민자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가족상봉에 의한 이민자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기에 아시아계처럼 가족초청이 많은 그룹의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이민자가 매년 이주할 수 있었다.(...)개정 이민법에서 또 다른 특기 사항은 전문직업인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미국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주 자격의 우선권을 줌으로써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아시아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 말미암아 교육받은 중산층 아시아인들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 1960년대 이후에 소위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라 불리는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부산하게 되는 일단의 근거를 제공했다.<sup>12)</sup>

본고의 작가들은 이러한 이민법 개정 이후 이민 열기에 힘입어 미국으로의 유학길에 올랐던 이들이다. 타이완 문단에서 白先勇의 《紐約客》, 張系國의 《昨日之怒》와 함께 於梨華는 1960년대 초 대표작인 《又見棕櫚又見棕櫚》를 통해 유학생 문학의 시초가 되었음은 물론이고 특히 《亞洲週刊》에서 선정한 20세기 중국소설 100선<sup>13)</sup>에 자신의 작품과 더불어 이름을 올렸다. 유학생 문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拓荒者文學’<sup>14)</sup>으로 부를 수도 있는 이들은 당시 개척자적 정신을 가지고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있어서 나름의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白先勇과 於梨華가 유학생 신분으로 도미하여 작품 활동을 하고 디아스포라의 감수성과 심리상태 및 체험에 관한 서사를 풀어낸 것에 대한 독보적인 위치와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sup>15)</sup> 張系國는 다양한 시대적 모습을 소설에 담아내고 있는데 《皮牧師正傳》에서는 1950년대를, 《棋王》에서는 1970년대를, 그리고 《衣錦榮歸》는 최근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다양한 시대적 배경을 작품 속에 서사로 이끌어낸다는 점에서는 張系國의 역사인식과 문제의식에 대한 관심이 남다름을 알 수 있다. 張系國의 고향회귀에 관한 부분은 그의 작품에서도 나타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미국 유학 직후 타이완으로 돌아오고자 애썼던 이력을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sup>16)</sup> 張系國가

12) 박정선,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타자화와 그 문제점>, 《역사비평》, Vol.-No.58, (역사문제연구소: 2002), p.286.

13) 《亞洲週刊》, 第14卷第12期, 2000年3月20-26日, pp.54-55.

14) 李黎, 《傾城·附錄》, (台北:聯經, 1989), p.137.

15)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계속해서 연구소 일을 하면서 학문에 몸담고 있었던 이력을 보더라도 타이완에서의 夏濟安의 지도를 받은 재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스승인 夏濟安의 모더니즘에 대한 심취에 영향을 받아 이들 작가들도 모더니즘적 수법을 작품 속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16) 그는 학위를 받고 IBM 연구센터에서의 단조롭고 기계적인 무미건조한 학문과 연구를 계속하는 것에 지쳐있었으며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과 중국인

타이완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던 그에게 있어서는 결코 놓칠 수 없었던 기회로 여겨졌음은 분명하다. 타이완으로 돌아가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강의를 했지만 그 해 12월 타이완에서 발생한 '철학과 사건'으로 연루된 동료들이 체포되자 아내의 강력한 권고로 張系國는 타이완을 떠나게 된다. 이 일은 張系國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대 사건이며 지식인에 대한 그의 인식에도 큰 변화와 나름의 시각을 정립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轟華苓의 대표작인 《桑青與桃紅》은 페미니즘적 시각에서도 연구될 수 있는 많은 이슈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역시 제3기의 대표적인 소설로 꼽을 수 있다. 게다가 이 작품에서 주인공을 둘 수 있는 것은 당시 디아스포라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현장리포트와 같은 사실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의 소설 속 주인공은 그 자체로 중국대륙에서 타이완으로, 타이완에서 미국으로 떠난 이민자로 디아스포라적 주체의 의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주인공이 디아스포라로서 겪게 되는 체험과 문화적으로 혼종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잃게 되는 과정까지를 살펴보면서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특징적인 부분을 함께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유학생 출신이었던 작가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인식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과 조우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었다. 이후의 세대 이민 작가들과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하다.

### 3.4. 제4기: 1990년대-현재

북미의 화인화문문학은 지역의 작가들의 모임과 학술단체들을 기반으로 하

---

들을 위해서 하나의 몫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그리하여 교직에 몸담기로 결심했으며 언젠가는 타이완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희망했다.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동시에 작품 활동을 해오다가 1972년 중앙연구소의 錢思亮 원장의 초청으로 다시 타이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 점차 영역을 확대해갔으며 그로부터 黃萬華가 언급했듯이 또 한 차례의 ‘고조기’<sup>17)</sup>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草根文群’<sup>18)</sup> 작가들의 등장도 이 시기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다. 1990년대 초반 무렵을 제4기의 시작으로 구분하면 이 시기는 타이완으로부터의 작가군과 중국대륙 및 홍콩으로부터의 작가들의 북미 지역에서의 활동도 점차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제3기의 북미 화인화문문학은 타이완 출신 작가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제4기 이후로는 이민 2세와 이민 3세들의 등장과 타이완 이외의 중국어 문화권 출신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창작 활동이나 문학작품은 초기의 작가들이 강조했던 고향으로의 회귀나 상실의 문제, 정체성의 혼란과 같은 문제보다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인성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띤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활동이 이토록 활발해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 것은 이전 세대의 고민과 경험이 녹아든 문학적 활동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1990년 이후인 제4기는 화인 디아스포라 작가들이 제도적으로 미국문학의 테두리 속에 편입된 경우가 많은데<sup>19)</sup> 디아스포라의 신분적 정

17) “美華文學的第三個高潮釀成於90年代。匯聚成這種高潮的有好幾種創作“潮流”。(…)美華文學團體，陣容最爲齊全的當推1991年5月成立於紐約，現擁有十個分會，近七百名會員的北美華文作家協會。(…)近年來也有一些來自大陸的作家加入了該會。(…)1987年成立於休斯頓的中國文化學社是個以大陸留美作家爲主要成員的團體，現任會長馬克任。該會以來自臺灣的作家爲主體，起依托的主要報刊《世界報》、《中國時報》、《聯合報》等也都爲臺灣報系所辦，但該報宗旨在於“凝聚志同道合人士，以文會友，相互切磋，交流創作經驗，聯絡感情，發揮力量在海外宣揚中華文化，推行文藝活動”，所以近年來也有一些來自大陸的作家加入了該會。(黃萬華主編，《美國華文文學論》，(濟南：山東大學出版社，2000)，p.8-9.) 90年代以來，除了“臺灣文群”及其延伸的移民作家群的創作仍在美華文壇產生重要影響外，“草根文群”和“新移民作家群”的崛起構成了美華文壇的重要潮流。”(黃萬華主編，《美國華文文學論》，(濟南：山東大學出版社，2000)，p.11)

18) 그들 중에는 黃運基처럼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산 사람들도 있어서 미국에서의 화인들의 역사적인 고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반면 劉荒田이나 老南처럼, 미국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자신들이 직접 노동을 경험하였거나 미국 화인들의 ‘草根’ 계층의 생활에 대해 익숙한 작가들도 있다.(他們中有在美國生活了半個世紀以上，對華人在美國的歷史苦難有深切瞭解的，如黃運基；也有定居美國不久，但因自己的底層打工生涯而熟悉美國華人“草根”階層生活的，如劉荒田、老南等。)(黃萬華主編，《美國華文文學論》，(濟南：山東大學出版社，2000)，p.11)

19) 이는 미국 내 소수민족/소수인종 문학으로 정전화에 편입시키려는 미국문학계의 전략과

체성을 부인하고 자발적으로 미국인으로서의 신분적 정체성과 미국문화 속의 한 개체로서 인정받고자 강력히 목소리를 내는 작가들도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1990년 이후의 북미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현재진행형이다. 제4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이전보다 더욱 폭발적으로 작가 수와 작품 수가 증가했다. 그리고 화인화문문학뿐만 아니라 화인영문문학 쪽에서도 괄목할 만한 작가들과 작품들이 등장했다. 북미 지역의 화인화문문학의 역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총 네 시기로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특히 중국대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북미 지역 화인화문문학사 중 제3기인데, 이는 중국대륙의 문화대혁명기에 해당한다. 문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억압받았던 중국대륙의 당시 상황에 대한 일종의 대안적 문학의 가능성으로 읽혀지고 있는 흐름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현재까지의 역사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 4. 나오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미 지역의 화인화문문학의 역사는 18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서 논의할 수 있으며 제1기에서 제4기로 구분되었다. 북미 지역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에 있어서 특이점은 이 지역은 작가들의 출신이 중국대륙인지 타이완인지에 따라서 제1기부터 제3기까지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 후 제3기에서 제4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중국대륙 출신의 작가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게 되고 더불어 이민 2, 3세의 문학 활동과 이민 1세의 문학 활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 시기에 이르게

되면서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영어로만 창작활동을 하는 湯亭亭이나 譚恩美와 같은 작가들도 등장하게 된다. 화인화문문학 논의에 있어서 북미 지역의 연구대상으로의 적합성에 관한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미 지역으로의 이민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1800년대 중반부터 미국으로 이주해온 중국인들은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갈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왔다.'<sup>20)</sup>고 하는 데이비드 펜드리의 말처럼, 북미 지역으로의 화인들의 이주 역사는 200여년 남짓 된다. 무엇보다도 북미 지역 자체가 이주와 이민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북미 지역의 문학 작품들은 자신들만의 분명하고 또 특징적인 경향을 띠고서 발전해가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거쳐 왔다. 허세욱은 남미와 북미, 호주, 유럽지역의 화문문학과 더 일찍이는 주류와 지류로 나뉘었던 각 지역의 문학 작품들이 이후 노스텔지어 문학, 디아스포라 문학, 유학생 문학의 형식으로 생산되었다고 분류한 바 있다. 더불어 그 문학은 삶에 충실하고 현실적이며, 그들의 감성 코드는 해당 지역에서 이미 '획적인 발전'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sup>21)</sup> 허세욱의 글에서 언급된 '획적인 발전'은 화인화문문학을 논함에 있어서 일종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이것은 곧 북미 지역의 화인화문문학이 중국대륙 문학과와의 차이와 특수성을 분명히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미 화인화문문학은 디아스포라 집단에 의한 문학의 대표적인 특성인 다음의 몇 가지를 담고 있다. 그것은 이산의 역사,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문화적

20) "Chinese people immigrating to the US from the mid-1800s came voluntarily, with plans to return to their families.", (David Pendery, "Identity development and cultural production in the Chinese diaspora to the United States, 1850-2004: new perspectives", *Asian Ethnicity* Vol.9, No.3, October 2008, p.203)

21) 至於南北美洲、澳洲、歐洲地區的華文文學，還早於辯清主流與支流，他們在產生懷鄉文學、流浪文學、留學生文學，他們的文學充實於生活的，現實的，但他們的華文感性，已有一層距離。因而可以說他們在海外形成了橫的發展，却與中國靠近的東南亞不同了。東南亞主要的華文文學地區，已經易地生根，他們離開了祖先的母土，越來越遠，對土生土長的地方認同方深，中國與海外華文文學在內容上，似乎有「遠交近功」的現象。(허세욱, <華文文學與中國文學>, <<중국어문논총>> 10집, pp.201-212)

혼종화, 제3의 공간에 속한 존재들의 모습, 대안적 저항담론으로 역할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같은 것들이다. 이들은 중국대륙에 속한 지류문학도 아니고 미국이나 캐나다 내의 소수민족문학도 아닌 그들 자체로 연구되고 해석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면 분명 이 글에서 논의된 것과 같은 북미 지역의 화인화문문학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북미 지역의 화인 작가들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지역적인 특수성을 가진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문학 연구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 參考文獻 >

- 張健 主編, 《全球化時代的世界文學與中國》,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
- 黃萬華, <民族性和公民性間的夏雜糾結>, 饒芃子, 《流散與回望》,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07.
- 饒芃子, 《流散與回望》,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07.
- 李亞萍, 《故國回望: 20世紀中後期美國華文文學主題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2006.
- 葉枝梅 主編, 《海外華文女作家評述: 美國卷》,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6.
- 黃昆章, 吳金平 《加拿大華僑華人史》,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01.
- 黃萬華, 《美國華文文學論》,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2000.
- 왕경우, 윤필준 역, 《화교》, 서울: 다락원, 2000.
- 潘亞暉, 《海外華文文學現況》,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6.
- 李黎, 《傾城·附錄》, 台北: 聯經, 1989.
- David Pendery, "Identity development and cultural production in the Chinese diaspora to the United States, 1850-2004: new perspectives", *Asian Ethnicity* Vol.9, No.3, October 2008.
- Xiao-huang Yin, *Chinese American Literature since the 1850s*,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0.



- Rey Chow, *Writing Diaspor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 김혜준, <화인화문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Vol.50,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
- 박정선,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타자화와 그 문제점>, 《역사비평》, Vol.-No.58, 역사문제연구소: 2002.
- 허세욱, <華文文學與中國文學>, 《중국어문논총》 Vol.10,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1996.
- 《亞洲週刊》, 第14卷 第12期, 2000年 3月20-26日.

### < 中文提要 >

生活在當今時代的人們正處於向離散者轉型的前一階段。在超越民族和國家概念的離散文學中存在著華人文學，作為華人文學的分支出現華人華文文學、華人英文文學、華人韓文文學等等。這樣的離散文學已經在歷史中形成，但是仍然存在很多沒有被明確掌握的層面。因此從後殖民主義視角考察華人離散文學將成爲一種可以自己的方式承認中國大陸，同時又防止其霸權主義的生成，減少矛盾產生的方法論。如果在進行後殖民時代離散者研究的同時有意揚棄差別態度，就要理解這種離散現象是在後殖民時代全球範圍內發生的事實。更進一步講，我們要肯定離散者所具有的異質性是他們的個別差異。本文所研究的北美華人華文文學的歷史與時期劃分是華人華文文學方面的初步階段而且爲了將來的北美地區華人華文文學的作品研究。

關鍵詞：華人華文文學、北美華人、離散、全球化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9. 29.	2012. 11. 2.	2012. 11. 17.	2012. 11. 21.	2012. 11. 30.